

<정답>

Q1	4	Q11	3
Q2	3	Q12	2
Q3	3	Q13	5
Q4	2	Q14	3
Q5	1	Q15	2
Q6	2	Q16	1
Q7	5	Q17	4
Q8	4	Q18	5
Q9	4	Q19	3
Q10	4	Q20	5

응시하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많으셨어요 ^^ 이의제기나 질문은 <케미제이 경제 모의고사 후기> 이 글에다가 답변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쪽지 부탁드립니다.

<해설>

1번.민간 부문의 경제 순환을 나타내는 표이다. 민간 부문 경제 주체는 기업과 가계이다. (가)는 생산 활동의 주체이고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함으로 기업이다. 자동으로 (나)는 가계가 된다. 화살표는 실물의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A시장은 생산물 시장,B시장은 생산요소 시장이 된다.

- 1.㉠에는 재화와 서비스가 포함되므로 택배 배송 서비스는 ㉠에 해당 할 수 있다.
- 2.(나)는 가계이다. 가계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 3.㉡은 생산요소 시장이다. 생산요소 시장에서는 노동,자본,대지,경영 등이 거래된다.
- 4.(가)는 기업이므로 경제재를 생산하여 이윤을 극대화 한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니는 재화는 공공재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5.B는 생산요소 시장이다. 생산요소 시장의 예로는 노동시장,자본시장 등을 들 수 있다.

2번

- 1.아담스미스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보아 공급을 증시하였다.
- 2.대공황 당시 상품의 과도 생산으로 재고가 쌓이고 경영난으로 노동자를 해고하게 된다. 노동자들은 해고되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재고는 더욱 더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 3.케인즈는 공공사업을 증대시켜 정부지출을 늘리고 가계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민간소비를 늘리고자 하였다. 이는 총수요 증대 유도책이다.(총수요=민간소비+민간투자+정부지출+순수출)
- 4.석유파동 당시에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원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총공급이 감소하여 발생하였다. 거시 모형 그래프에서 총수요가 일정할 때 총공급 감소는 실질GDP 하락과 물가상승을 유도하여 정부의 총수요 조절책을 무효로 만든다.

5.스태그 플레이션은 총수요 조절책을 무효화시켜 정부 실패를 야기한다. 세계경제는 스태그 플레이션을 경험한 이후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맞이한다.

3번

- 1.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불분명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 2.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불분명하다.
- 3.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불분명하다.
- 4.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가격은 불분명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 5.수요가 일정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4번

갑국 통화에 비해 미국의 달러는 평가 절상 되었다. 반대로 갑국 통화에 비해 일본의 엔화는 평가 절하 되었다. 갑국의 통화와 미국의 달러와 일본의 엔화를 동시에 비교하면 미국의 달러>갑국 통화>일본의 엔화 순서대로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 1.갑국의 통화는 미국의 달러에 비해 평가 절하 되고 있으므로 갑국기업은 채무 상환을 미룬다면 동일한 양의 달러를 환전하기 위해 더 많은 통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채무 상환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
- 2.일본의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갑국에서의 생활비,달러로 지불하는 학원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엔화로 갑국의 통화와 달러를 환전해야한다. 따라서 부담이 증가한다.
- 3.자국의 화폐가치가 평가 절하 될수록 수입국에서 수입국의 통화로 환산한 가격은 감소한다. 엔화가 갑국의 통화보다 크게 평가 절하되는 추세이므로 달러로 표시된 일본 기업 상품의 가격은 갑국 상품의 가격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한다. 따라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 4.동일한 미국의 달러를 환전하기 위해 필요한 갑국 통화는 늘어났기 때문에 평가 절하 되었다.
- 5.3번 선지와 반대로 미국에서 수출하는 소고기의 가격은 엔화와 갑국통화로 표시될 때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따라서 수요량이 감소할 것이다.이는 수출량의 감소로 이어진다.

5번

부가가치=총수입-중간재비용 이윤(순수익)=총수입-총비용

ㄱ.총수입은 900만원이다.총비용은 450만원이다. $900-450=450$

ㄴ.총수입은 900만원이다. 재료비만 중간재 비용에 포함된다. 따라서 갑이 창출한 부가

가치는 750만원이다. Tip.부가가치=총분배(임금+지대+이자+이윤)

ㄷ.수입항목을 나타내는 좌측 표에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나와있지 않다. 사이드메뉴는 서비스가 아니라 재화이다.

ㄹ.재료비 150만원은 중간재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옳은 선지는 ㄱ,ㄹ 이다.

6번

간접금융상품=자신이 투자한 돈이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음.EX)예금,적금,펀드<주의-헛갈릴수있음>

직접금융상품=자신이 투자한 돈이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음.EX)주식,채권

1.주식은 간접금융 상품에 비해 높은 위험성과 높은 수익성을 지닌다.

2.펀드는 주식에 비해 안정성이 더 높고 수익성이 낮다. 하지만 간접금융 상품에 속하기 때문에 틀린 선지이다.

3.채권의 일종인 회사채를 구입한 사람들은 채권에 인쇄되어 있는 확정이자와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차이로 이익을 추구한다.

4.정기예금은 기간을 정하여 예금을 해야 계약시의 이자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반면 요구불 예금은 필요시에 아무런 제약없이 입출금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동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5.금리가 상승한다면 예금,적금을 통해서도 많은 이자를 얻을 수 있으므로 채권구매의 기회비용이 상승한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할 수록 채권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7번

(가)는 수요 곡선이 두개이고 사회적 최적거래량보다 시장거래량이 적은 그래프이므로 수요측면의 외부경제이다. (나)는 수요 곡선이 두 개이고 사회적 최적거래량보다 시장거래량이 많은 그래프이므로 수요측면의 외부불경제이다.

1.(가)는 사회적 최적량보다 적게 생산되었다.또한 외부경제 이므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2.(가)는 사회적 최적량보다 적게 생산되었다

3.같은 수량에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소비를 통해 발생하는 편익이 개인이 느끼는 것보다 사회가 느끼는 것이 크기 때문에 과소소비 되는것이다.

4.(나)는 사회적 최적량보다 많이 소비되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5.(나)는 사회적 최적량보다 많이 소비되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8번

- ㄱ. A재는 그래프가 이동하기전에 공급이 수요를 압도적으로 초과하여 자유재였다. 하지만 이동후에도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지 않는다. 이는 여전히 자유재임을 보여 준다.
- ㄴ. B재는 기존에는 최소요구비용이 너무 높아 공급곡선이 높은 곳에 위치해서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그래프는 고차원 기술을 요구하는 상품에서 자주 나타난다. 하지만 정부가 연구비에 투자하여 생산단가를 낮춘다면 공급이 증가하여 시장에서 가격을 가지고 거래된다.
- ㄷ. 마트에서 판매되는 생수는 과거에 자유재였던 재화가 경제재로 변화한 예시이므로 A재의 예시에 적합하지 않다.
- ㄹ. 우주여행 상품은 고차원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B재와 같은 변화를 겪을 것이다.

9번

- ㄱ. 경제 문제는 자원의 절대적인 희귀성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따른 상대적인 희소성에 의해 발생한다.
- 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는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문제이다. 이에 효율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된다.
- ㄷ.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는 예를 들어 기계를 사용하여 생산할 것인지, 사람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생산할 것인지 등의 결정하는 문제이다. 이는 생산요소의 선택과 결합의 문제라 할 수 있다.
- ㄹ.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는 분배와 관련된 문제이다. 1), 2)의 항목과 달리 효율성과 형평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이다.

10번

- 최저가격제는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또한 최저가격은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실효성을 지닌다.
- ㄱ. A안의 4900원은 시장가격인 5000원보다 낮은 가격이므로 실효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공급자인 노동자들이 받을 임금을 낮추기 때문에 노동자를 보호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 ㄴ. B안을 선택하면 기존의 임금보다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나와 구직 활동을 한다. 이는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초과공급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이는 실업으로 연결된다.
 - ㄷ. 고용률은 취업자수/노동가능인구로 계산한다. 노동가능 인구는 일정한 상황이다. 하지만 C안은 B안보다 더많은 초과공급을 발생시키고 노동 시장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영향을 끼친다. 이는 취업자수가 줄어듦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용률은 하락한다.

ㄹ. 노동가능 인구=비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이다. B안을 선택하면 균형점에서 보다 노동의 공급이 증가한다. 이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공급이 추가 된 것이고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것이다.

11번

1. A재는 가격이 10% 상승할 때 -5%의 판매수입 감소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A가 탄력성이 1보다 큰 탄력적 재화임을 알 수 있다.

2. B는 가격이 변화하더라도 일정한 판매수입을 보인다. 이는 B가 단위탄력적 재화임을 보여준다.

3. C재는 가격이 10%상승할 때 판매수입이 10%상승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C가 완전비탄력적인 재화임을 알 수 있다. 가격이 변할지라도 수요는 일정하기 때문에 판매수입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과 항상 일정하며 판매량도 일정하다.

4. B재와 C재의 중간에 해당하는 탄력성을 지닌 재화는 비탄력적인 재화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재화는 생필품이다.

5. A재와 B재의 중간에 해당하는 탄력성을 지는 재화는 탄력적인 재화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인 재화는 사치품이다.

12번

1. 최저가격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격하한선이 시장가격보다 높아야한다.

2. 정부의 개입없이 시장의 균형점에서 거래될 때 사회적 잉여는 항상 극대화 된다.

3. 최고 가격제는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P2에서 최고 가격제가 실시 된다면 사각형C와 사각형C,삼각형A 사이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을 더한 만큼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4. P1, P2로의 가격규제는 둘다 시장거래량을 Q1-Q0만큼 감소시킨다.

5. 노동시장에서 최저가격제가 실시되어 임금이 상승되면 일자리에 비해 구직자가 많아져 실업이 발생한다.

13번

ㄱ. 갑국의 조세제도는 변경 전에는 과세대상소득이 증가하여도 세율이 일정하다. 이는 비례세에 속한다. 반면 변경 후에는 과세대상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누진세에 속한다.

- ㄴ.을국의 변경 전 조세제도는 과세대상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액이 점점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누진세에 속한다. 간접세는 비례세가 적용된 조세제도이다. 소비자 부가가치세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ㄷ.갑국은 변경후에 누진세의 모습을 보여준다. 현재 대한민국의 소득세 제도는 누진세이다.
- ㄹ.을국의 조세제도는 변경 전에 누진세의 모습에서 변경 후에 비례세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변경 전에 비해 변경 후에 역진성을 보인다 할 수 있다.

14번

- 균형가격 균형점은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을 발생시키는 가격 사이에서 형성된다.
- 가격이 30원일때 초과수요이다. 하지만 가격이 40원일때는 초과공급이다. 따라서 가격 균형점은 30원~40원 사이에 존재한다.
- 가격이 30~40원 사이일때 공급량은 150~160개 사이이다. 가격이 30~40원 사이일때 수요량은 160~140개 사이이다. 두 개의 교집합을 구하면 균형거래량은 150~160개 사이이다. 따라서 답은 3번.

15번

- ㄱ.물가는 GDP디플레이터 즉 물가지수의 근사값을 통해 계산 할 수 있다. 2011년의 물가지수(명목GDP/실질GDP)x100%를 구해보면 100이다. 2012년의 물가지수를 동일한 방식으로 구해보면 100보다 작은 수치이다. 따라서 물가지수의 절대값이 줄었으므로 물가가 하락했다고 할 수 있다.
- ㄴ.2013년도의 물가지수는 100보다 높다. 반면 2014년의 물가지수는 100이다. 이를 통해 2014년도의 물가는 전년대비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 ㄷ.기준년도의 물가지수는 100이다. 2014년도의 물가지수 또한 100이다. 따라서 실질 GDP가 증가하였지만 물가는 동일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ㄹ.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실질 GDP가 증가하면 +의 값을 가지고 감소하면 -의 값을 가진다. 2013년도는 전년과 비교할 때 실질 GDP가 동일하므로 경제성장률은 0%이다.

16번

1. 재정구축효과란 정부가 정부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증대시켜 민간소비를 늘리려 할 때 발생하는 역효과이다. 정부지출을 늘리기 위해선 자본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에 따라 금리는 상승하게 되고 정부의 예상과는 다르게 금리상승으로 인해 민간소비가 증대되지 않는다. 이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반대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번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다.
2. 갑은 시장 실패를 우려하여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3. 갑은 수정자본주의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4. 을은 정부 실패를 우려하여 시장 기구의 자동조절능력을 신뢰하는 입장이다.
5. 노동시장에서 최저가격제가 실시되어 임금이 상승되면 일자리에 비해 구직자가 많아져 실업이 발생한다.

17번

1. (가)구간에서 Y재 생산 20개를 줄여 X재 40개를 생산 할 수 있으므로 Y재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2개이다.
2. 점 A,B,C는 모두 곡선상에 위치하므로 효율적 생산점이다.
3. (나)구간에서 Y재 생산 60개를 줄여 X재 30개를 생산 할 수 있으므로 X재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2개 이다.
4. (가)구간에서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2개이다. 또한 (나)구간에서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1/2개이다. 따라서 3배가 아니라 4배크다.
5. 생산가능 곡선 안쪽 점들은 생산은 가능하지만 비효율적 생산점들이다.

18번

1.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통해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실물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돈을 빌려 실물에 투자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비해 유리해진다. 또한 부유한 사람들이 대개 실물자산을 많이 보유하기 때문에 빈부격차 또한 심화된다.
2.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국내물가가 올라가고 외화로 표시한 국내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국내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 수입을 줄인다. 따라서 경상수

지는 악화된다.

- 3.디플레이션은 물가하락과 고용침체를 야기한다. 고용침체는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가계소득 감소는 연쇄적으로 기업경영의 악화를 야기하고,이런 악순환은 지속된다.따라서 물가는 상승하지만 경기는 활성화되는 인플레이션에 비해 높은 피해를 야기한다 할 수 있다. 대공황의 폐해를 생각해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 4.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원인은 수입원료 가격의 상승이다. 오일쇼크 당시 석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 대다수 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였다.
- 5.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개선하기 위해 총수요를 늘리면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총수요를 줄이면 높은실업이 발생한다. 따라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을 해결 하기 위해선 정부가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등 총공급을 증대 시켜야 한다.

19번

- 1.해외 투자자들이 갑국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늘린다면 외화를 갑국의 통화로 환전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갑국 금융 시장의 자본 공급은 증가한다. 따라서 S1이 S2로 이동한다.
- 2.경기 활성화에 따라 건설업에 투자하려는 사업자가 늘어나면 사업자본을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D1이 D2로 이동하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은 상승한다.
- 3.해외 금융 상품에 대한 갑국 국민들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환전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저축한 돈을 찾는다. 이는 갑국의 통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야기한다. 따라서 자본의 공급은 줄게된다.
- 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재화 소비의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진다. 이는 S1을 S2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 5.실질 이자율은 공급시장에서 가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증가할뿐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지 않는다.

20번

- 1.Y재 생산에 비교우위는 을국이 지닌다.
- 2.X재 생산에 절대우위는 갑국이 지닌다.
- 3.무역이전에 갑국에서 X재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Y재 1/2개이다. 하지만 무역이후에 갑국에서 X재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Y재 4/5개이다. 따라서 기회비용은 증가한다.
- 4.X재 2개와 Y재 3개를 거래하는 조건이라면, 갑국은 자신의 X재 2개 생산의 기회비

용인 Y재 1개보다 더많은 Y재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교역에 응할 것이다. 하지만 을국은 Y재 생산의 기회비용이 X재 9/4개이다. 따라서 자급자족으로 만드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교역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5. 갑국은 X재에 특화하였고 을국은 Y재에 특화하였다. 갑국은 X재 100개를 모두 교환하였을 때 Y재를 최대 80개 까지 소비할 수 있고 을국은 Y재 80개를 모두 교환하였을 때 X재 100개까지 소비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나라의 교환비율은 X재5개:Y재4개이다. 즉 X재1개:Y재4/5개이다.